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⑩

슬프도다! 이것은 가을의 소리구나

근세 한국화의 대가 상당수가 즐겨 그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방야독서도(方夜讀書圖)이다. 어두운 밤 촛불을 켜 방을 밝히고 책을 읽는 선비가 잠시 독서를 멈추고 창밖의 동자를 바라보며 땀을 주문하는 그림이다.

아담한 서재는 기와집에 달린 별채로, 책을 펼친 것이 밖에서도 보이는 독특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공간적 배경으로는 대나무, 소나무 등이 둘러싸인 인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고가(古家)인데, 수염이 난 젊음은 선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자에게 땀을 물어보고 있고, 동자는 심부름을 가는 길인 듯하다.

때로는 동자는 졸고 있고 선비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그림이 있기도 하다. 이 방야독서도는 마치 민화처럼 여덟 폭의 병풍을 그리 때 반드시 한 폭을 함께 그려 넣는데, 때로는 현판으로 그려져 독자적인 화가 개인의 풍성한 상상력과 화풍을 보여줄 때도 적지 않다.

휘영청 밝은 달이 마치 대낮처럼 집 주변을 밝힌다. 가을을 알리는 듯한 시든 풀이나 고목들이 여기저기 심어져 있기도 하는데, 촛불과 달은 항상 대조적으로 서로 빛을 경쟁이나 하듯이 촛불은 실내에서 둥근 달은 온 하늘을 차지하고 밝고 또 밝게 세상을 비추고 있다.

밤을 세워 글을 읽던 이 문사(文士)는 누구일까? 이 등장인물이 바로 당송팔대가 중에서도 으뜸가는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스승이었던 구양수(歐陽修)이다.

이 그림은 당대에 유명한 문학의 한 형태인 부(賦)의 형식을 빌려 쓴 그의 작품 추성부(秋聲賦)를 묘사한 그림이다.

부(賦)는 한문문체의 하나로 본래 시경(詩經)의 표현방법의 하나이다. 작자의 생각이나 눈앞의 경치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는 것이다.

유림(劉勰)에 의하면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부란 펼친다는 뜻이다. 아름다운 채색을 펼치고 무늬를 이룩해 사물을 묘사하고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부의 문체를 정의한다.

이 글은 구양수가 52세 때에 가을의 쓸쓸한 바람소리가 숲속의 나무들을 스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감흥을 동자(童子)와의 대화형식으로 쓴 글이다.

가을바람의 처량함과 만물이 시드는 경치를 보고,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삶을 관련시켜 인생의 덧없고 무상함을 안타까운 탄식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추성부의 뛰어난 묘사를 방야독서도는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발군(拔群)의 원문을 감상해 그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다. 추성부의 원문 일부를 발췌하며 이제는 비가 그만 내리고, 풍성한 가을이 오기를 기원하고자 한다.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의 방야독서도

근세 한국화가 즐겨 그린 '방야독서도'

어두운 밤 촛불을 켜고 책 읽던 구양수가 잠시 독서 멈추고 창 밖 동자 바라보며 "가을소리구나. 어찌하여 온 것인가"

이 글이 오기를 기원하고자 한다.

「구양자(歐陽子)가 밤에 책을 읽고 있다가 서남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흠칫 놀라 귀기울여 들으며 말했다. "이상하구나!" 처음에는 낙엽지고 쓸쓸한 바람부는 소리더니 갑자기 물결이 거세게 일고 파도치는 소리같이 변했다. 마치 파도가 밤중에 갑자기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좀 나가 보아라." 동자가 말했다. "별과 달이 밝게 빛나고 하늘엔 은하수가 걸려 있으며 사방에는 인적이 없으니 그 소리는 나무사이에서 나고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아, 슬프도다! 이것은 가을의 소리구나. 어찌하여 온 것인가? 저 가을의 모습이란, 그 색(色)은 암담(暗淡)하여 안개는 날아가고 구름은 걷힌다. 가을의 모양은 청명(淸明)하여 하늘은 드넓고 태양은 빛난다. 가을의 기운은 살이 저미도록 차가워 피부와 뼈속까지 파고들며, 가을의 뜻은 쓸쓸하여 산천이 적막해진다. 그러기에 그 소리가 처량하고 애절하며 울부짖는 듯 떨치고 일어나는 듯한 것이다. 풍성한 풀들은 푸르러 무성함을 다두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울창하게 우거져 불 만하더니, 풀들은 가을이 스쳐가자 누렇게 변하고, 나무는 가을을 만나자 잎이 떨어진다. 그것들이 꺾어지고 시들어 떨어지게 되는 까닭은 바로 한 가을 기운이 남긴 매서움 때문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아침

안개가 산을 덮었다  
때론 산도 쉬며 청정심을 유지하나 보다  
산은 안개를 품고 안개는 산을 품고  
그렇게 함께 간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 개들의 날개짓 소리만  
들리는 이른 아침  
산을 바라보는 나도 산이 된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禪詩) 28 조선 허백명조 선사(虛白明照)의 '비 그침(雨霽)'

낮이면 밭 갈고 밤이면 잠자네

夕陽疎雨過 (석양소우과)  
風景更淸明 (풍경경명)  
花笑千峰色 (화소천봉색)  
溪鳴萬壑聲 (계명만학성)  
月昇驚宿鳥 (월승경숙오)  
風動感人情 (풍동감인정)  
珍重晴陰味 (진중청음미)  
群萌盡發榮 (군맹진발영)

석양에 성근 빗방울 지나니  
풍경이 더욱 조촐하네.  
온 산봉우리는 핀 꽃 색이요  
온통 계곡은 시냇물 소리구나.  
달이 떠오르자 잠든 까마귀 놀래고  
바람이 불자 사람의 정을 흔드네.  
소중한 비 개인 맛  
온갖 씩이 다 싹트고 윤기 나네.

사대부 명문 출신인 허백명조(虛白明照; 1593~1661)스님은 13세에 사명 대사에게 구족계를 받은 뒤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법을 견단했다. 34세 때 후금의 침범이 있자 강원 감사의 천거로 의병대장의 임무를 맡았다. 이때 스님은 항상 효도와 충성의 큰

길임에는 틀림없으나 부처님의 청정한 자비 행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감동을 하게 되고 이수라장이 되는 전장에서 슬픔의 눈물을 적시기도 한다. 이 시기 심정을 표현해 놓은 시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전란의 소재 외에 서경을 읊은 시들에서는 선사로서의 면목

을 볼 수 있다. 위의 시는 비가 그치고 난 뒤 경관을 맑고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처음 두 구에서는 비 그치고 난 뒤 바라보는 맑게 갠 풍경으로 시제를 열었다. 핀 꽃이 온 산봉우리를 뒤 덮고, 불어날 계곡물소리가 온 골짜기를 흔들어 놓는다. 색과 소리로서 비온 뒤의 조촐한 경치를 묘사하느라 보여주었다. 이제 시간은 석양이 지고 달이 떠오를 때다. 이때 동지에서 졸던 새가 푸드덕 거린다. 이러한 달밤에 바람까지 부니 인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담담한 서경이 가져다 주는 감동이다. 움직임이 고요함으로 승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제 시선은 다시 비온 뒤 생동하는 푸른 새색으로 옮겨진다.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비건 뒤의 가장 값진 맛임을 강조한 것이다. 비온 뒤의 경치를 감상하며 전장에서 피폐해진 자비심과 청정한 구도열을 온쾌하게 살찌우고 싶었는데도 모를 스님에게서 나를 본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쉽고 빠르게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EASY GOLD**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러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일상사 홈페이지 참조 [www.yiss.co.kr](http://www.yiss.co.kr)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 瑩 普 珮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분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100g 330g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 99,000원

• 판매원 : 마하물 021732-1520  
• 제조원 : 다영보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크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http://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http://www.다영보이.kr)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차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초제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초제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타올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제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래원 원장 해파 함장**  
전화주사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 전통  
초상의 일과 흠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4만원 미만의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http://www.msjy.co.kr)